

임실서 가야봉수 실체 드러내다

오수면 봉화산 정상부서

기둥구멍 '영정주공' 등

첫 가야 토축 봉수대 확인돼



임실 봉화산 봉수지 조사현장.

임실군(군수 심민)에서 추진하고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에서 발굴조사한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산 30번지 일원의 봉화산 정상부에서 임실군에서 처음으로 가야시대의 토축 봉수대가 확인됐다.

임실 봉화산 봉수유적은 기록에 의하면 '둘레 144m의 흙으로 쌓아 만든 것으로서 일명 두치(斗峙)봉수대'라고 알려져 왔다.

최근에는 장수지역의 가야세력에 의해 운영되었던 봉수길 중 하나로서 서북쪽의 육녀봉 봉수, 남서쪽의 무재봉 봉수, 북동쪽의 덕대산 봉수, 남쪽의 노산 봉수와 연결되는 요충지에 자리하면서 삼국시대 삼진강 상류지역의 교통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유적은 2018년과 2019년의 발굴조사를 통해 봉수의 흔적과 봉수를 운영했던 생활터를 찾는 바이다.

이번 조사는 2018년의 발굴조사에서 나무기둥 일부가 확인되었던 봉화산 정상부지역으로 조사결과, 암반층을 깎아 평탄하게 조성한 후 나무기둥을 세웠던 다수의 기둥구멍을 비롯하여 불을 피웠던 흔적이 확인됐다.

이 기둥구멍 '영정주공(永定柱孔)'들의 크기는 직경 25~45cm, 깊이 10~20cm 내외로서 평

탄하게 조성된 정상부에 토단을 쌓기 위한 버팀목을 지지했던 시설로 추정된다.

그리고 불을 피웠던 흔적 주위로는 석재가 세워져 있는데, 이는 봉화의 발화시설일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영정주공과 발화시설을 통해 기록에서 보이는 '토축의 봉수'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으며, 기둥구멍 주변에서는 가야계의 회청색 경질토기 뚜껑, 접시를 비롯한 생활토기 등도 출토됐다.

2020년 3월 20일에 실시한 학술지문화회에서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재연구소 박정근 소장은 "토축의 봉수는 삼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급강이나 만경강 수계권에서 확인되고 있는 석축의 봉수와는 다르게 구조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며 임실 봉화산 봉수는 가야세력에 의해 운영되었던 점을 강조했다.

전주대학교 이상군 교수는 "이번 토축 봉수 발굴조사를 계기로 여타 토축 봉수와 비교, 고찰하는 종합적인 학술대회 등을 거쳐서 도지정문화재로의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실군 일원에는 현재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15개소의 봉수가 확인되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봉수의 성격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임실군에서는 향후 연계되는 다수의 봉수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봉수의 운영시기와 사용 집단세력, 그리고 봉수의 구조와 성격을 밝혀나기면서 문화재 지정 등의 보존관리 및 정비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문은 군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63-640-2315)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산고 학생들의 성장기, 책으로

'평화를 알고 찾아가는 여정' 등 5권 발간

고산고등학교(장경덕 교장) 학생들이 다양한 국내외 체험활동을 통한 자신들의 성장기를 책으로 담아냈다.

전교생이 120명, 한 교실이 15명을 넘지 않는 완주의 작은 학교인 고산고는 지난 2018년 공립형 대안고등학교로 전환한 뒤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며 학생들은 정규수업 외에 다양한 교실 밖 수업을 경험해 왔다.

1학년은 만경강 물줄기를 따라 3박 4일간 자연생태탐방을 떠나고, 2학년은 평화기행 '베트남 해외 이동학습'을 떠난다. 3학년은 주제를 찾아 친구와 떠나는 여행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글로벌 직업교육 독일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고산고 학생들은 만경강 생태탐방의 경험을 '만경강 물줄기를 따라(2018)', '만경강 따라 200리(2019)' 두 권의 책으로 집필했고, 베트남 평화 기행은 '평화를 알고 찾아가는 여정'(2019)이라는 책으로 담아냈다.

멘토를 선정해 한 학기동안 멘토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수업을 마친 후엔 '2018 LTI 프로젝트 보고서'와 '2019 LTI 프로젝트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밖에도 바리스타, 제과제빵, 컴퓨터, 코딩, 목공, 이마용 등 다채로운 진로체험이 가능한 '발상과 표현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적성과 진로를 찾고 자신감을

키워간다.

정재혁(고3) 학생은 "고산고에 입학한 뒤 저 자신에게 자부심이 생겼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배웠다. 무슨 일이든 도전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구병용(고3) 학생은 "맛있는 재료가 어우러져 훌륭한 맛을 내는 비빔밥처럼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건장한 급식, 행복한 교육과정이 어우러진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니는 저는 행운이다"고 말했다.

강지향(고3)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는 적은 편이지만 자기주도적으로 시간관리를 해야한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스스로 하고 갈등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학교는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다"고 말했다.

강은석(고2) 학생은 "학교를 다니며 불행하거나 슬프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학교는 행복 그 자체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계속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장경덕 교장은 "아이들 스스로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고 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다채로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인재, 밝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틱톡 #태권격파챌린지 흥행 돌풍

태권도진흥재단, 오픈 4일 만에 340만 뷰 달성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이 지난 3월 23일부터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통해 진행 중인 '태권격파챌린지'가 오픈 4일 만에 340만 뷰를 달성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3월 26일 현재, '태권격파챌린지'는 340만 뷰를 돌파한 가운데 공식 콘텐츠에만도 2.5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태권도 선수들의 고난도 격파를 비롯해, 어린이·청소년들이 종이에 쓴 코로나19를 격파하는 모습 등 참신한 격파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심리적 방벽의 한 가지로 '태권격파챌린지'를 통해 격파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틱톡 이용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태권격파챌린지'는 태권도 송편을 비롯해 종이, 사과, 스티로폼 등 일상 속 어떤 소재든지 격파



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틱톡 앱에서 사운드 탭 '태권격파챌린지' 음원을 선택한 후 격파 영상을 제작해, 필수 해시태그인 '태권격파챌린지'와 함께 '전체 공개'로 업로드하면 된다.

한편, '태권격파챌린지'는 4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참가자 중 50명을 선발해 구글 기프트카드(1만원권)를 증정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강연명 의심되면 '1339'로

'디지털 고창문화대전'

구축 10년 맞아 새롭게 정비

고창군 향토사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디지털 고창문화대전'이 구축 10년을 맞아 새롭게 정비된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고창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총망라된 '디지털고창문화대전' 정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0년 말 구축된 '디지털고창문화대전'은 사라지는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데이터화 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기존 자료를 현재 시점에서 그간 변화상과 발원상을 반영한 신규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올 연말까지 자료수집, 집필, 멀티미디어 제작 등을 거쳐 편찬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디지털고창문화대전 정비사업은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웹기반을 조성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자료로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26회 전국한지공예대전' 5월 15~16일 출품작 공모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제26회 전국한지공예대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출품작에 대한 공모 원서접수는 오는 5월 16일까지, 출품 접수는 5월 15~16일 이틀간 전주를 포함, 전국 6개 지역에서 이뤄진다.

출품 분야는 ▲전통(지호, 지승, 색지, 지장, 지하, 부채, 수묵지 등) ▲현대(한지 조형, 의상, 닥종이 인형, 한지 그림, 한지 부조, 낙화 등) ▲기타(문화상품, 민화를 응용한 한지공

예, 창작 한지, 응용 한지 등) 등 모두 3개 부문이다.

타 전시, 공모전 입상작 및 모방작을 제외하면 국내·외 제한 없이 출품이 가능하다. 접수는 전주를 포함해 서울과 경기분당, 광주, 대구, 원주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조직위는 당초 5월 초 시상식을 개최하고자 공모 일정을 계획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월 말 목표로 공모 일정을 수정하게 됐다. /뉴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